

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시장 분석

1. 최근 업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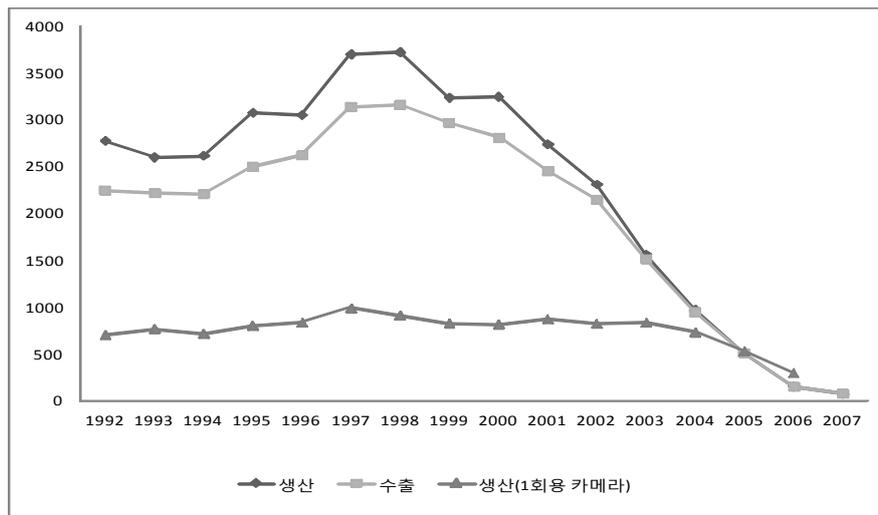
-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빠른 속도로 기업간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업체간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지난 2003년에 오랜 전통을 유지해오던 미놀타와 과거 필름업체였던 코니카가 그 해 8월에 경영통합을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음
 - 그 이후 이 두 회사가 통합한 회사(코니카미놀타)는 2006년 3월 필름사업과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디지털 일안 반사식(DSLR) 카메라사업과 렌즈 교환식 디지털카메라사업을 소니에게 모두 양도하였음
 - 2005년 9월에는 1997년부터 디지털카메라 시장에 진출했었던 교세라가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면서 생산을 중단하였음
- 특히 2008년은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해로 지금의 업계 구조를 구축하는데 주요했음
 - 2008년 3월에 오랜 전통을 이어오던 펜탁스가 렌즈생산 업체인 호야에 흡수통합되면서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8개사(캐논, 니콘, 소니, 펜탁스, 파나소닉, 올림푸스, 후지필름, 카시오)체제가 구축되었음
 - 또한 파나소닉이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음
- 한편 최근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(DSLR) 카메라를 중심으로 생산대수를 늘려나고 있는 추세임
 - 반면 그 동안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주도했던 콤팩트디지털카메라의 일본 국내 판매는 2005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해외 판매는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임
 - 또한 지난 2006년 마츠시다전기산업이 올림푸스와 공동개발로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 진출한 이후 이 분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음

-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대로 코니카미놀타로부터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사업을 사들인 소니가 가세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
2. 시장 규모

- 일본의 카메라 생산은 1962년에 생산대수와 수출 모두 독일을 능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음
- 특히 35밀리 콤팩트 카메라는 1978년에 1,181만대였던 생산대수가 1998년에 3,721만대로 증가하면서 일본은 카메라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
- 그러나 그 이후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일반 카메라는 급격히 생산이 감소하였음(<그림1>참조)

<그림1> 카메라 생산 · 수출 추이(단위: 만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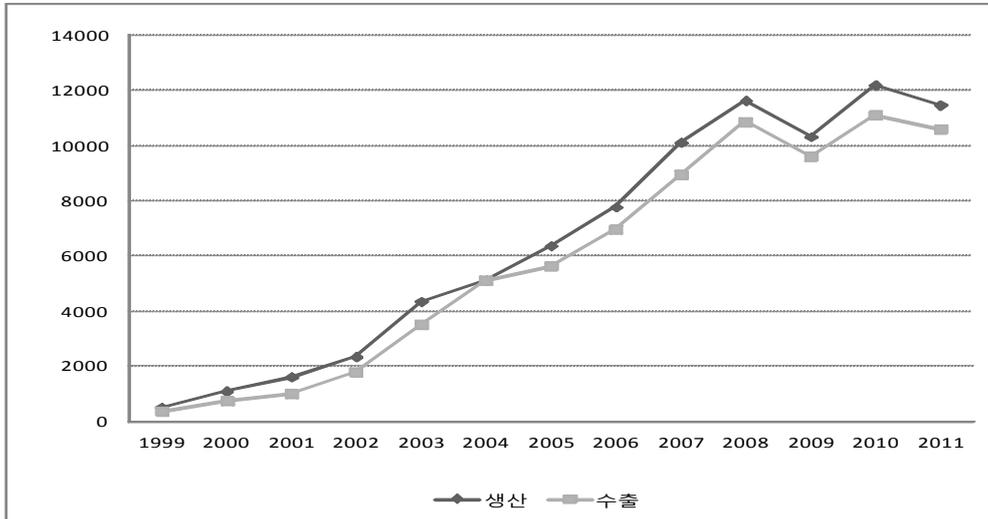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카메라映像機器工業会(<http://www.cipa.jp/>)에서 작성

-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생산 및 수출 대수는 2008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20~30%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(<그림2>참조)
- 최초 생산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생산대수가 2007년에 1억대를 돌파하였고 이듬해에는 수출도 1억대를 넘었음
-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졌던 지난 2009년에 디지털카메라 수출 대수가 1억대 미만으로 한때 내려갔으나 그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1년에 1억6백만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음

- 2011년 일본 디지털카메라 총생산 대수는 1억2천만대에 육박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

<그림2> 디지털카메라 생산 · 수출 대수 추이(단위: 만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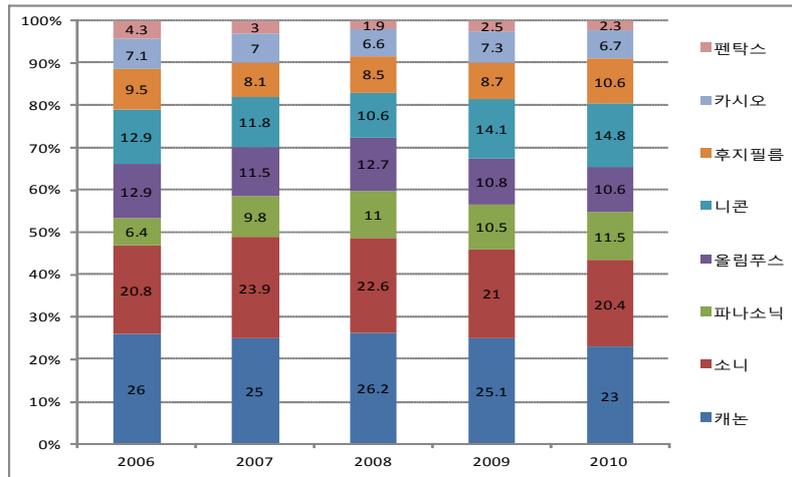


주) 통계에 인용한 일본 업체: 올림피스, 카시오계산기, 캐논, 산요IC솔루션즈, 시그마, 세이코엡손, 소니, 니콘, 파나소닉, 후지필름, 펜탁스리코이머징 등 11개 업체 자료) 카메라映像機器工業会(<http://www.cipa.jp/>)에서 작성

3. 시장 점유율

- 각 업체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출하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캐논과 소니가 1,2위를 차지하고 있음(<그림3>참조)
 - 다만 캐논과 소니 두 회사를 더한 시장점유율이 2006년 46%에서 2008년 49%로 증가한 이후 2009년에 46%, 2010년에는 43%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그 동안 캐논의 강세에 밀려 있던 니콘, 파나소닉 등이 일안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 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
 - 3위 이하의 시장점유율 순위는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니콘이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판매호조 영향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
 - 줄곧 수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캐논의 시장점유율은 파나소닉과 니콘 등의 호조에 밀려 다소 줄어들고 있음
 - 한편 파나소닉은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출시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2006년 6%에서 2008년 11%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1.5%까지 상승하였음

<그림3> 디지털카메라 업체별 출하 비중



자료) 渡辺広明(2012), “デジタルカメラ市場の確立過程とその展開—その機構の連続性と非連続性を中心に—”, 日本大学経済科学研究会紀要, 第42号에서 재인용

- 한편 2012년 7월 한 달 동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개별 제품별 판매 순위에서는 캐논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카시오와 소니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는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캐논 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(<표1>참조)
 -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판매 순위 20위 안에 캐논제품은 7개, 카시오 제품은 4개, 소니 제품은 3개, 니콘제품과 후지필름제품이 각각 2개, 올림푸스와 파나소닉이 각각 1개씩 들어가 있음
-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판매실적은 일본 디지털카메라의 양대 기업인 캐논과 니콘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나소닉이 선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(<표2>참조)
 - 판매순위 상위 6개 제품 중 3개가 니콘제품일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니콘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
 -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분야에서 캐논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니콘이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분야에서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임
 - 캐논은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서도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분야와 비슷한 정도의 판매 순위를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계의 최고 업체임을 입증하고 있음

〈표1〉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판매 순위(2012년 7월 실적)

| 순위 | 제조사 | 모델명 | 발매일 | 가격(엔) |
|----|------|--|---------|--------|
| 1 | 캐논 | IXY 600FxSamantha Thavasa Petit Choice | 2011/10 | 20,100 |
| 2 | 캐논 | PowerShot A2300 | 2012/03 | 9,900 |
| 3 | 캐논 | IXY 600F | 2011/09 | 15,900 |
| 4 | 소니 | Cyber-shot HX30V | 2012/03 | 43,700 |
| 5 | 카시오 | HIGH SPEED EXILIM EX-ZR300 | 2012/06 | 33,800 |
| 6 | 니콘 | COOLPIX S3300 | 2012/02 | 12,400 |
| 7 | 니콘 | COOLPIX S3300 | 2012/02 | 12,600 |
| 8 | 소니 | Cyber-shot W610 | 2012/02 | 9,600 |
| 9 | 파나소닉 | LUMIX SZ7 | 2012/02 | 21,800 |
| 10 | 카시오 | HIGH SPEED EXILIM EX-ZR300 | 2012/06 | 32,200 |
| 11 | 후지필름 | FinePix F770EXR | 2012/02 | 26,600 |
| 12 | 카시오 | EXILIM EX-ZS150 | 2012/03 | 14,700 |
| 13 | 카시오 | HIGH SPEED EXILIM EX-ZR200 | 2011/11 | 22,900 |
| 14 | 소니 | Cyber-shot WX100 | 2012/03 | 23,900 |
| 15 | 후지필름 | FinePix JX550 | 미확인 | 9,100 |
| 16 | 캐논 | IXY 600F | 2011/09 | 17,500 |
| 17 | 올림푸스 | OLYMPUS Tough TG-620 | 2012/02 | 21,800 |
| 18 | 캐논 | PowerShot A2300 | 2012/03 | 9,400 |
| 19 | 캐논 | PowerShot A2300 | 2012/03 | 9,500 |
| 20 | 캐논 | IXY 220F | 2012/02 | 20,100 |

자료) BCN홈페이지(<http://bcnranking.jp>)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

주) BCN은 일본 전역의 가전 양판점에서 판매한 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함.

〈표2〉 디지털 일안 반사식(DSLR)카메라 판매 순위(2012년 7월 실적)

| 순위 | 제조사 | 모델명 | 발매일 | 가격(엔)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 | 캐논 | EOS Kiss X5 | 2011/03 | 76,800 |
| 2 | 니콘 | D3100 200mm | 2011/07 | 56,700 |
| 3 | 파나소닉 | LUMIX GF5 | 2012/04 | 66,300 |
| 4 | 니콘 | D5100 | 2011/04 | 80,500 |
| 5 | 캐논 | EOS Kiss X4 | 2010/02 | 54,700 |
| 6 | 니콘 | Nikon 1 J1 | 2011/10 | 61,700 |
| 7 | 캐논 | EOS Kiss X5 EF-S18-55 IS II | 2011/03 | 64,800 |
| 8 | 올림푸스 | OLYMPUS PEN mini E-PM1 | 2011/10 | 44,500 |
| 9 | 파나소닉 | LUMIX GX1 | 2011/11 | 57,300 |
| 10 | 소니 | NEX-5N | 2011/09 | 60,500 |
| 11 | 캐논 | EOS Kiss X6i EF-S18-135 IS STM | 2012/06 | 127,500 |
| 12 | 캐논 | EOS 60D | 2011/11 | 105,400 |
| 13 | 소니 | a65 | 2011/10 | 83,100 |
| 14 | 올림푸스 | OLYMPUS PEN Lite E-PL3 | 2011/09 | 66,900 |
| 15 | 소니 | NEX-7 | 2011/11 | 114,300 |
| 16 | 캐논 | EOS Kiss X6i | 2012/06 | 129,700 |
| 17 | 소니 | NEX-5N | 2011/09 | 60,700 |
| 18 | 캐논 | EOS 60D | 2010/09 | 73,300 |
| 19 | 소니 | NEX-F3 | 2012/06 | 75,900 |
| 20 | 니콘 | D5100 18-55VR | 2011/04 | 61,50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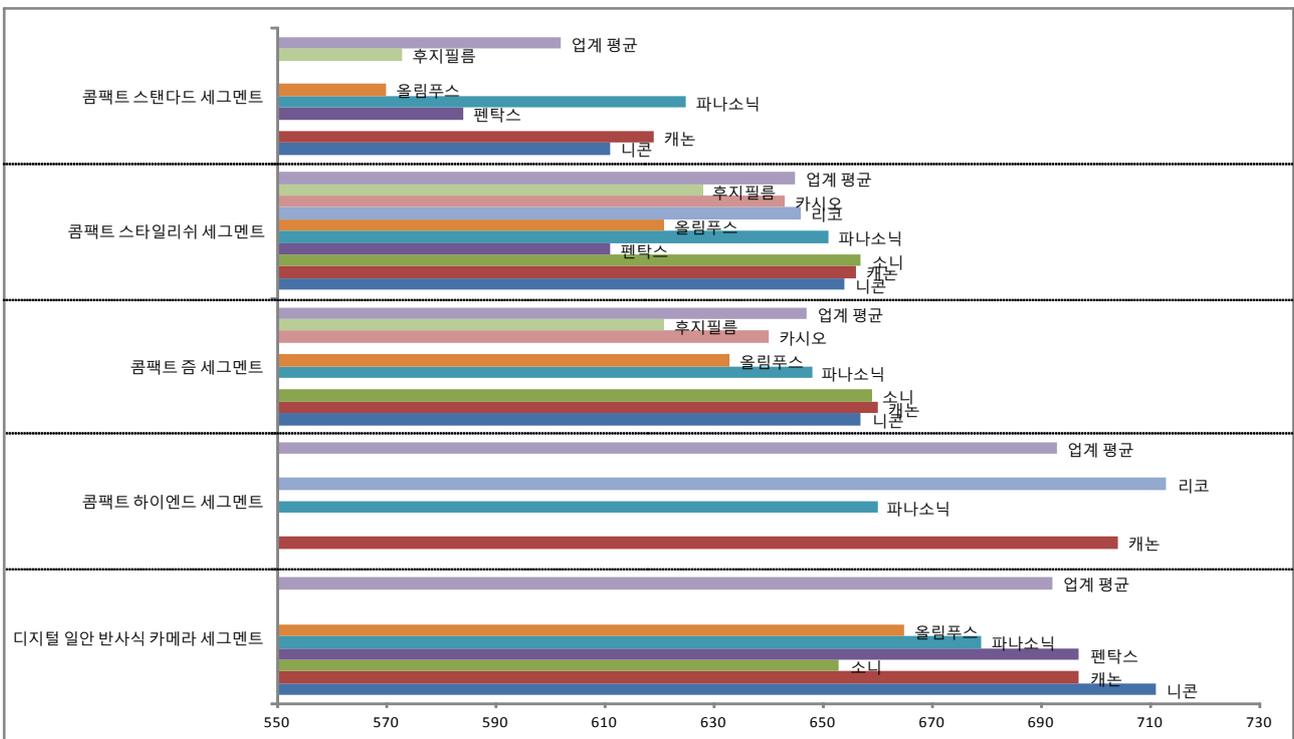
자료) BCN홈페이지(<http://bcnranking.jp>)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

주) BCN은 일본 전역의 가전 양판점에서 판매한 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함.

4. 소비 동향

- J.D.POWER가 실시한 일본의 디지털카메라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의 경우 니콘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
 - 1,000점 만점에 711점을 확보하여 업계평균 692점을 크게 웃돌고 있음
 - 영역별 만족도 평가에서는 ‘기능·성능’에서는 니콘과 캐논이, ‘화질’에서는 니콘, ‘디자인’에서는 파나소닉, ‘조작성’에서는 펜탁스가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음

〈그림4〉 디지털카메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(1,000점 만점)



주)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세그먼트: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
 콤팩트 하이엔드 세그먼트: 발매 시점 가격이 5만엔 이상으로 광학줌 배율 10배 미만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
 콤팩트 줌 세그먼트: 광학줌 배율 10배 이상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
 콤팩트 스타일리쉬 세그먼트: 발매 시점 가격이 5만엔 미만으로 광학줌 배율 10배 미만, 건전지 미사용 콤팩트디지털카메라
 콤팩트 스탠다드 세그먼트: 발매 시점 가격이 5만엔 미만으로 광학줌 배율 10배 미만, 건전지 사용 가능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

자료) J.D. 파워-아시아·패시픽(2009), “日本デジタルカメラ顧客満足度調査”에서 작성

- 콤팩트 하이엔드 세그먼트에서는 조사 대상 3개 업체 중에서 리코가 종합점수 713 점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704점으로 캐논이 3위는 660점을 확보한 파나소닉이 차지함

- 리코는 ‘디자인’ 과 ‘조작성’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‘디자인’ 에서는 771점을 기록하면서 업계평균보다 무려 61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음
 - 한편 ‘기능·성능’ 영역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캐논이 ‘화질’ 에서는 파나소닉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
- 콤팩트 줌 세그먼트에서는 660점을 기록한 캐논이 1위에 올랐고 2위는 소니 3위는 니콘이 차지함
- 특히 캐논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웃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‘조작성’ 영역이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함
 - 2위를 차지한 소니는 ‘디자인’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능·성능 영역은 카시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
- 콤팩트 스타일리쉬 세그먼트에서는 9개의 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소니가 종합 만족도 65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캐논 3위를 니콘이었음
- 소니는 ‘디자인’ 과 ‘화질’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‘디자인’ 영역은 평균보다 32점 높은 707점을 기록함
 - ‘조작성’ 영역에서는 캐논, ‘기능·성능’ 영역에서는 리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
- 마지막으로 콤팩트 스탠다드 세그먼트에서는 파나소닉이 625점으로 1위를 차지함
- 파나소닉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웃돌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‘기능·성능’, ‘디자인’, ‘화질’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
 - 2위 캐논은 ‘화질’ 과 ‘조작성’ 에서 3위 니콘은 ‘디자인’ 영역에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음

5. 향후 시장 전망

- 디지털카메라 분야는 일본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많지 않은 제품 중 하나이지만 일본의 8개 회사가 치열하게 시장 쟁탈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함
- 주요 8개 회사의 판매 동향을 근거로 살펴보면 캐논과 니콘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, 새로운 신흥업체라 할 수 있는 파나소닉, 소니, 후지필름이 그 뒤를 따르

고 있으며 올림푸스, 카시오, 펜탁스(호야)는 다소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양상임

- 시장 점유율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캐논은 2010년에 전년대비 11% 증가한 2,670만 대를 생산하였으나 콤팩트디지털카메라 보다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가 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
 - 특히 EOS시리즈의 판매호조가 최근 캐논의 성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
- 한편 파나소닉과 소니는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분야가 기업 전체의 성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종래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소비층이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 분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
 - 특히 렌즈교환식은 디지털 일안 반사식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하기 때문에 종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소비층 중에서 고화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음
- 가장 고전을 하고 있는 업체는 올림푸스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판매부진으로 생산계획을 점차 줄어가고 있음
 - 이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완전하게 전자화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는 신규진입이 비교적 쉬어 삼성전자 등 한국업체는 물론 중국업체 등도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태임
 - 그 결과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
 -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이 이미 상당수준의 고화질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상대적 우위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
 - 따라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축소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가 생기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결국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대체품과 신규진입자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
 - 따라서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분야에 상대적 우위성을 가진 업체는 이 분야에서 확고한 정상의 자리를 확보하든지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체품(스마트 폰 혹은 휴대전화)의 디바이스업체로 전환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

- 한편 일본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전형적인 일본기업들의 독무대로 외국업체 제품 판매는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향후 주력상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선정한 바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설 공산도 있음
 - 현재 세계 디지털 카메라시장은 캐논이 1위, 소니와 니콘이 뒤를 잇고 있고 삼성전자는 4위를 유지하고 있음
 - 특히 앞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전문가용이나 DSLR 등의 고급제품은 일본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
 - 삼성이 카메라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78년으로 오래되었지만 휴대전화나 TV에 비교하면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
- 최근 삼성이 카메라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
 - 카메라는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, 디지털 카메라에서 앞으로는 ‘스마트 카메라’로 진화할 것이며 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임
 - 디지털 기술과 IT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‘스마트 카메라’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, 실제 지난 2014년 4월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‘스마트 카메라’를 출시하고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음

<참고자료>

1. 카메라映像機器工業会(<http://www.cipa.jp>)
2. BCD홈페이지(<http://bcnranking.jp>)
3. J.D. 파워아시아·패시픽(2009), “日本デジタルカメラ顧客満足度調査”
4. 渡辺広明(2012), “デジタルカメラ市場の確立過程とその展開—その機構の連続性と非連続性を中心に—”, 日本大学経済科学研究所紀要, 第42号
5. 東洋経済新報社(2012), “IT・ネット業界地図2012年版(会社市季報 図解シリーズ)”
6. 富士キメラ総研(2011), “ワールドワイド エレクトロニクス市場総調査”
7. 豊田賢二(2006年), “デジタルカメラ発達史”, 日本写真学会誌, 69卷4号